

보도일시 (인터넷) 2026. 9. 27.(일) 11:00
(지면) 2026. 9. 28.(월) 조간 배포 2026. 9. 23.(수) 오후

연안 선박 신규 건조 지원으로 바닷길은 안전하게 연안 물류 경쟁력은 탄탄하게

- 9.28~10.16, '2026년 제3차 연안 선박 현대화 펀드' 지원 대상자 공모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는 9월 28일(월)부터 10월 16일(금)까지 '2026년 제3차 연안 선박 현대화 펀드'(이하 '현대화 펀드') 지원 대상자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노후화된 연안 여객선과 화물선을 새로운 선박으로 교체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2016년부터 현대화 펀드를 조성하여 운영해 왔다. 펀드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선사는 선박의 가격에 따라 건조비의 30%에서 60%를 펀드에서 지원받고, 나머지는 금융기관 대출과 선사 자부담으로 마련하게 된다. 해당 선사는 선박의 운영을 통해 15년간 3년 거치, 12년 분할 납부를 통해 건조비를 모두 상환한 후 선박의 최종 소유권을 갖게 된다.

현재까지 현대화 펀드를 통해 연안 여객선 9척과 연안 화물선 5척 등 총 14척의 건조를 지원하였다. 그 중 실버클라우드(제주-완도)호와 코리아 프라이드(인천-백령)호 등 6척의 연안 여객선은 건조를 마치고 항로에 투입되어 국민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바닷길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해양수산부는 2024년부터 지원 대상을 연안 화물선까지 확대하고, 같은 해에 (주)KHOS 등 9척의 화물 선사를 지원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이후 현대화 펀드의 지원을 받아 건조된 첫 연안 화물선인 코스 스텔라(KHOS STELLA)호가 올해 8월부터 운항을 시작하였다.

또한 원자재 가격 상승 등 선박 건조 비용이 크게 증가한 점을 고려하여 올해부터 지원 비율을 상향하였다. 기존에는 선가가 60억 원 이하일 경우 선가의 60%, 60억 원 초과 120억 원 이하일 경우 50%, 120억 원을 초과할

경우 30% 규모로 펀드 자금을 지원하였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선가가 150억 원 이하일 경우 60%, 150억 원 초과 300억 원 이하일 경우 50%, 300억 원을 초과할 경우 30%를 지원한다.

현대화 펀드 지원을 받고자 하는 내항여객 및 화물 운송 사업자는 펀드 위탁운용사인 세계로선박금융(주) 누리집(www.globalmarifin.com)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금융기관 대출 계획, 선사 여건과 재무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정될 예정이며, 공모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세계로선박금융(주)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혜정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현대화 펀드를 통해 오래된 연안 선박의 교체를 지원하여 연안 물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선사들이 신규 선박을 건조하는 경우 현대화 펀드가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원을 이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해운물류국 연안해운과	책임자	과 장	심상철 (051-773-5730)
		담당자	서기관	한정수 (051-773-5731)

□ 사업 개요

- (목적) 민간 자본을 활용하여 노후 연안 여객선 및 화물선 대체 건조를 지원하여 연안해운 안전 및 효율성을 확보하고 서비스 향상
- (법적근거) 「해운법」 제39조 및 시행령 제19조, 「선박투자회사법」
- (조성기간 / 펀드규모) '16~'30년 / 3,000억 원
- (지원대상 / 운영기관) 내항여객·화물 운송 사업자 / (주)세계로선박금융
- (현황) '16~'26년 펀드 2,490억 원 조성, 14척 선박 지원(7척 건조 완료)
 - * '16~'22년까지 1,990억 원을 출자하였으나 「연안 교통 안전 강화 및 산업 육성 대책」(국정 현안 관계 장관회의, '23.8.17)에 따라 '24~'29년 출자 규모를 3,000억 원으로 확대
- (주요내용) 정부 출자를 통해 현대화 펀드를 조성하고, 금융기관 대출 및 선사 자부담을 결합하여 선박 대여회사 설립 및 선박 건조 지원*
 - * 선박 대여회사가 선박을 건조하고 선사와 장기 용선계약(15년) 체결, 선사는 용선료를 지불하여 펀드 투자금 상환(3년 거치, 12년 분할 상환) 및 선박 확보

선가	펀드	금융기관	자부담	운영방식
300억 원 초과	30%	산업은행 40% + 민간금융 20%(해진공 보증)	10%	
150억 원 초과 300억 원 이하	50%	산업은행 또는 민간금융 40%(해진공 보증)	10%	
150억 원 이하	60%	산업은행 또는 민간금융 30%(해진공 보증)	10%	

- 현재 운항 중인 지원 선박 현황

지원선박	선박명(선사명)	항로	선종	총톤수
1	실버클라우드 (한일고속)	제주-완도	카페리	19,700톤
2	퀵메리 (씨월드고속훼리)	목포-제주	카페리	14,900톤
3	한일골드스텔라 (한일고속)	제주-완도	카페리	19,700톤
4	퀵제누비아 (씨월드고속훼리)	목포-제주	카페리	26,700톤
5	오션비스타제주 (현성MCT)	삼천포-제주	카페리	20,500톤
6	코리아프라이드 (고려고속훼리)	인천-백령	초쾌속선	1,300톤
7	KHOS STELLA (주)KHOS	부정기	화물선	958톤